

# 제주도 '신구간(新舊間)' 풍속의 유래에 대한 고찰\*

윤용택\*\*

<차례>

- I. 들어가는 말
- II. 신구간과 '새관교승'
- III. 신구간 풍속과 관련된 기록
- IV. 신구간의 유래
  1. 고유문화설
  2. 외래문화설
  3. 백낙연 목사 기원설
  4. 탐관오리설
  5. 자연환경설
- V. 이사철로서의 신구간
- VI. 맺음말

## I. 들어가는 말

제주도에는 육지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신구간(新舊間)'이라는 특이한 세시풍속이 있다. 제주도의 민간에서는 이사, 집수리, 변소개축 등을 이 '신구간'에만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즉 제주인들은 "대한(大寒) 후 5일에서 입춘(立春) 전 3일 사이에 옥황상제(玉皇上帝)의 명을 받아 지상(地上)의 일을 관장하던 신(舊官)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새

\* 본 논문은 2005년도 제주대학교의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신구간의 유래와 관련해서 대담에 응해주신 현용준, 진성기, 오문복, 김익수 선생과 한국과학사학회발표에서 논평과 많은 지적을 해주신 한국과학사학회 회원들, 어려운 한문을 번역하는데 도움을 주신 김익수 선생과 제주대학교 중문과 안재철 교수, 그리고 신문자료를 찾고 대담을 녹취하느라고 수고한 제주대학교 대학원생 홍성택 군과 진소정 양에게 감사드린다.

\*\* 제주대 철학과 교수

로 임명받은 신[新官]들이 내려오므로, 이 기간[新舊間]에는 지상에 신이 없기 때문에 신이 두려워서 못했던 일들을 해도 아무런 탈이 없다. 그러나 평상시에 그러한 일들을 했다가는 동티[動土]가 나서, 그 집에는 큰 가환(家患)이 닥치고 액운(厄運)을 면치 못하게 된다.”<sup>1)</sup>는 속신(俗信)을 믿으면서 살아왔다.

여기서 ‘대한’과 ‘입춘’이라는 절기가 말해주듯이, 신구간은 목은철과 새철이 교체되는 시기이다. 즉 음력을 사용하던 제주의 농경 사회에서는 신구간을 목은 것과 새로운 것이 갈리는 기준이면서, 목은철을 정리하고 새철을 준비하는 준비 기간으로 삼았다. 계절은 태양과 지구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태음력만으로는 계절의 오고감을 알 수 없다. 따라서 농경사회에서 계절의 순환을 알기 위해서는 태양이 시운동(視運動)하는 황도(黃道) 상을 15° 간격으로 24등분한 이른바 24절기를 도입해야 했다. 즉 24절기는 태음태양력(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음력)에서의 태양력의 요소로 음력을 사용하던 농경사회에서의 농사력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24절기의 마지막 절기인 대한과 첫 절기인 입춘 사이에 있는 신구간은 농경 사회의 제주인들에게 목은철이 가고 곧 새철(봄)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 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제주도가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신구간이 곧 ‘이사철’로 통용되면서 그 폐단도 적지 않다. 일시에 많은 가구가 이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이 부족하던 시절에는 임대료 폭등을 가져왔고, 이사점센터의 횡포로 이사비용이 많이 들며,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는 1960~70년대에 제주도의 6대 악습<sup>2)</sup>의 하나로 규정하여 신구간을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1) 진성기, “新舊間과 民俗信仰”, 『국어국문학』 34·35 합병호, 국어국문학회, 1967, 211쪽. 진성기, 『제주도민속』, 제주민속연구소, 1997, 383-388쪽 및 『제주도지』 하, 제주도, 1982, 926-928쪽 참조

2) 관에서는 제주도에서 폐지해야 할 낡은 악습으로 1960년대에는 ① 신구간, ② 점술

하였다. 그러나 신구간 풍속은 예전보다는 많이 완화되었지만 의학이 발달하고 정보화가 이뤄진 오늘날까지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에도 신구간에 맞춰 입주할 수 있도록 준공일자를 맞추고 있고, 행정관청에서는 신구간만 되면 쓰레기 대란에 대비해서 비상체제로 바뀌며, 전화, 가스, 유선방송, 인터넷 등의 설비업체에서는 신구간에 비상근무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신구간 풍속의 유래와 연원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규명해봄으로써, 신구간 풍속이 과연 현대 사회에서도 유효한 세시풍속인지를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신구간과 관련된 기존 연구가 부족하고, 신구간에 대한 기록이나 자료가 많지 않아서 그 유래와 연원을 밝히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는 제주의 원로 민속학자, 무속학자, 향토사학자 등과의 대담, 단편적으로 전승되는 이야기, 신문자료 등을 바탕으로 신구간 풍속의 유래와 연원을 찾아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신구간의 직접적인 연원으로 알려진 '세관교승'에 대해 고찰하고, 3장에서는 신구간에 대한 문자화된 기록이 없는 이유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제주도의 원로 학자들과의 대담과 세간의 의견들을 바탕으로 신구간의 유래와 연원을 추론해 보고, 5장에서는 해방 이후에 제주 사회의 산업화와 도시화 등을 통해 신구간이 이사철로 정착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 II. 신구간과 '세관교승'

제주도의 신구간이 예전부터 행해져 왔고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있는

및 무당 등 미신, ③ 경작지내 매장, ④ 돛통시(재래식 변소), ⑤ 허례허식, ⑥ 농어촌의 도박 등을 잡고 이에 대한 계몽운동을 벌였고, 1970년대에는 ① 신구간, ② 미신, ③ 암매장, ④ 허례허식, ⑤ 목야지 화입, ⑥ 무고(誣告) 등을 없애기 위해 계몽 위주에서 처벌 위주로 전환하기도 하였다.

민간 세시풍속이지만 언제부터 행해져왔고 어떤 연유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길이 없다. 대체로 제주도의 민속학자들은 신구간의 인위인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2일 사이가 신새(新歲) 구새(舊歲)의 관신(官神)이 교차하는 때(大寒後五日立春前二日 乃新舊歲官交畵之際)이므로, … 집을 짓고 장사를 지내도 불리함이 없다.”는 ‘세관교승(歲官交承)’에서 찾는다.

‘세관교승’의 내용은 조선후기 관청과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도참서(圖讖書)인 『천기대요(天機大要)』<sup>3)</sup>에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대한 후 10일, 입춘 전 5일인데, 다만 그 하루가 상길(上吉)이 되고, 그 전 1일과 후 1일이 차길(次吉)이 된다. 이 날은 구신(舊神)은 막 떠나고 신신(新神)은 아직 오지 않은 때이다. 이것은 곧 1년 중의 공망일(空亡)인 까닭에 연월일시를 세지 않으며, 상극(相兇)이라 하더라도 모든 일에 거리낄 것이 없다. 다만 길성(吉星)이 와서 도와주지 않으니, 5일 내에 일을 마치는 게 좋다. ○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2일은 곧 신새관(新歲官)과 구새관(舊歲官)이 교승하는 때이다. 입춘일을 범하지 말고, 반드시 황도일(黃道日)과 흑도일(黑道日)을 가려서, 먼저 조상의 신주에게 길(吉)한 방향으로 피해서 나가도록 청해야 한다. 이때에는 산운(山運)에도 거리낌이 없어 길흉살에 이르기까지 크

3) 『천기대요』는 역학(易學)과 오행설(五行說)의 원리에 바탕을 뒤서 상장(喪葬), 기조(起造), 혼인(婚姻), 이사(移徙) 등 인간생활의 길흉화복을 가리는 방법을 기술한 도참서로 조선시대에는 조정에서부터 일반백성에 이르기까지 일용편람으로 널리 애용되었다. 『천기대요』는 명나라 임소주(林紹周)가 편찬하였고, 인조14년(1636) 성여훈(1583-1662)이 도입하여 간행하였다가 병자호란 뒤인 효종4년(1653)에 시헌력(時憲曆)에 따라 개편되었다. 이 책을 원전으로 하여 음양과 출신인 지백원(池百源)이 영조 13년(1737년)에 증보본(增補本)을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그의 손자 지일빈(池日賓)이 영조39년(1763년)에 신증본(新增本)을 간행하였다. 그리고 관상감에서 고종 39년(1902년)에 지송욱(池松旭)의 증보신본(增補新本)을 발간하였고, 그것의 영인본을 1977년에 대한역법연구소에서 발행하였다. 대한역법연구소 역편, 『詳譯 新增參贊秘傳 天機大要』, 대지문화사, 2004, 1쪽. 한편 김혁제(金赫濟)는 이전의 『천기대요』를 교주(校註)하여 1970년에 『개정증보 천기대요』를 발행하였다. 김혁제 교주, 『改正增補 天機大要』, 券之下, 명문당, 2000, 4쪽.

복되므로, 임의대로 가택을 짓고 장사를 지내도 불리함이 없다. ○ 한식 청명은 곧 모든 신이 상천(上天)하는 날이므로, 새 묘를 짓고 낡은 묘를 고치는 데 불리한 게 없다. 하루에 일을 끝마치지 못하면, 청명일까지는 끝마치는 게 좋다.(옛날에는 택일하지 않고 모두 이 시기를 이용하였다.)<sup>4)</sup>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세관교승'은 처음부터 『천기대요』에서 별도의 '조(條)'로 있었던 게 아니고 '투수일(偷修日)'<sup>5)</sup>조의 일부로, 여러 투수일들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투수일(대한을 1월 20일 기준으로 할 때) 1월 30일, 1월 25일~2월1일, 한식청명(4월 5일경) 등으로 3회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후에 증보된 『천기대요』와 홍만선(1664~1715)의 『산림경제(山林經濟)』<sup>6)</sup>에 의서는 '세관교승'이 '투수일(또는 투시[偷時])'조와 별도의 조로 분리되고 있다.

4) **條** 大寒後十日 立春前五日 只一日爲上 前一日後一日爲次 右日 舊鬼將謝 新神未進 此乃一年之空亡 故不計年月日時 受剋而 百事無忌 但無吉星之來助 五日內畢功爲可 ○大寒後五日 立春前二日 乃新舊歲官交令之際 不犯立春日 須擇黃黑道 先請祖先神主出避吉方 不忌山運 被克及諸般吉凶殺 起葬 葬埋 任意爲之 無不利 ○寒食清明 卽諸神上天日 動作修營新舊墓 無所不利 一日內未畢役 則可於清明日畢功(古者不擇日 皆用此時) 대한역법연구소 편, 原本 影印版 『新增參贊秘傳 天機大要』, 대지문화사, 1981, 131-132쪽.

5) 신이 조회(朝會)하러 하늘로 올라가서 지상에는 신이 없기 때문에, 그 틈을 이용하여 평소에 꺼리던 일을 해도 탈이 없는 날을 의미한다.

6) 『산림경제』는 조선 후기 실학자 홍만선(洪萬選:1643(또는 1664)~1715)이 농업과 일상생활에 관한 광범위한 사항을 기술한 농촌생활에 필요한 가정보감(家庭寶鑑)이었다. 이 저술은 한국 최초의 자연과학 및 기술에 관한 교본으로 한국과학사에 빛나는 금자탑을 이룬다. 그러나 홍만선의 『산림경제』는 간본(刊本) 없이 필사본으로만 전해 오다가 1766년(영조 42) 유중림(柳重臨)에 의하여 16권 12책으로 증보되었다. 신승운, "산림경제 해제", 민족문화추진회 역, 『산림경제』 I,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6, 1쪽-15쪽 및 홍이섭, '홍만선의 산림경제에 대하여', 『山林經濟』(한국학기본총서제8집, 吳漢根 소장본 영인본), 경인문화사, 1973, 1-3쪽 참조.

■■■■(이 날은 舊年의 신이 떠나고 新年의 신은 아직 나오지 않은 1년 중의 空亡일이므로 모든 일에 거리낄 것이 없다. 다만 吉星이 와서 도와주지 않을 뿐이다) 대한 후 10일 입춘 전 5일로 다만 그 하루가 上吉이고 앞의 1일과 뒤의 1일은 次吉이다. 이 때는 年월일시를 가리지 않으며 상극이라 하더라도 해롭지 않다. 그러나 5일에 인을 끝마치는 게 좋다. ■■■■(입춘일을 범하지 말고 반드시 황도일과 흑도일을 가려라)은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2일까지로 신세관과 구세관이 교승하는 때이다.(먼저 조상의 신주에게 吉한 방향으로 피해서 나가도록 청한다. 다만 이 기간에 일시를 잘 가리게 되면 山運에 거리낄 게 없고 모든 흉살이 극복되므로 가택을 짓고 장사를 지내도 이롭지 않음이 없다.) 한식 淸명(모든 신이 上天하는 날이므로 낡은 묘를 새묘로 고치더라도 이롭지 않은 바가 없다. 하루, 즉 寒食일에 일을 끝마치지 못하면 淸明일에 끝마쳐도 된다.) 立石, 修砌, 改墳 등을 이 날에 하였는데, 옛날에는 택일하지 않고 모두 이 시기를 이용하였다.<sup>7)</sup>

■■■■(舊神이 물러가고 新神이 나오지 않으므로, 이때가 곧 1년간의 空亡이다. 殺神들이 전혀 맥을 쓰지 못하므로 모든 일에 거리낄 것이 없다. 다만 吉星의 來助는 없다.) 대한 후 10일, 입춘 전 5일인데, 다만 그 하루가 上吉이고 전 1일과 후 1일은 次吉이니, 年월일시를 세지 않으며, 상극이 되더라도 해가 없다. 그러나 5일 안에 일을 끝마치는 게 좋다. ■■■■(立春日을 범하지 말고 모름지기 黃道와 黑道를 가려서 사용한다.) 대한 후 5일과 입춘 전 2일은 곧 신세관과 구세관이 교승하는 때이다. 그 사이(대한 후 5일과 입춘 전 2일)에 사용할 날짜와 시간을 잘 가리면 山運에 거리낄 게 없고, 모든 吉凶殺에 이르기까지 극복된다. 집을 짓고 장사를 지내는 일을 마음대로 하여도 불리함

7) [俗例] (舊鬼將謝新神未進 此乃一年之空亡 故百事無忌 但無吉星之來助矣) 大寒後十日立春前五日 只一日爲上 前一日後一日爲次 不計年月日時 受剋而爲之無害也 五日內畢功爲可 ■■■■(不犯立春日須擇黃黑道) 大寒後五日立春前二日 乃新舊歲官交令之際(先請祖先神主出避吉方 只可其間善擇日時 不忌出運[山運] 被克及諸般凶殺 起造葬埋任意爲之無不利) 寒食淸明(此兩日 諸神上天日 動作修營新舊墓無所不利 一日內未畢役 則可於淸明日畢功) 立石修砌改墳者宜於此日動作 古者不擇日此時皆用之. 金赫濟 校註, 『改正增補 天機大要』 卷之下, 명문당, 2000, 4쪽. 여기서 '出運'은 '山運'의 誤記이다.

이 없다. ■■■■■ 비석을 세우고 섬들을 고치고 무덤을 고치거나 옮기는 자는 마땅히 이 날에 해야 한다. 옛날에는 擇日하지 않고 모두 이 때를 사용했다. 이 兩日은 모든 神들이 上天하는 날이므로 물건을 움직이고 고치고 지으며 新墓와 舊墓를 莎草하거나 옮겨도 불리함이 없다. 하루에 일을 마치지 못하면 후에 청명일에는 일을 끝내야 한다.<sup>8)</sup>

그리고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2일까지 구세관과 신세관이 교체된 다”는 내용은 오늘날 민간에서 택일을 하는 경우에 널리 사용되는 『택일 대감(擇日大鑑)』<sup>9)</sup>과 『대한민력(大韓民曆)』<sup>10)</sup> 등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세관교승’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만일 신구간이 ‘세관교승’에서 비롯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 기간은 제주도 민간에 통상적으로 알려진 ‘대한 후 5일, 입춘 전 3일’인 1주일이나 아니라, ‘대한 후 5일, 입춘 전 2일’인 8일간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한이 1월 20일이고 입춘이 2월 4일이라면, 신구간은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되는 셈이다.<sup>11)</sup>

8) ■■■■■(舊鬼將謝 新鬼未進 此乃一年之空亡也 殺神專不用事 百事無忌而 但無吉星之來助) 大寒後十日 立春前五日 只一日爲上 前一日後一日爲次 不計年月日時 受剋而爲之 無害也 五日內畢功爲可 ■■■■■(不犯立春日 須擇黃黑道) 大寒後五日 立春前二日 乃新舊歲官交令之際 其間善擇日時 不忌山運 被克及諸般吉凶殺 起造葬埋 任意爲之 無不利 ■■■■■立石修砌改墳者 宜於此日動作 古者不擇日 此時皆用之 此兩日 諸神上天 動作修營新舊墓 無所不利 一日不畢役 後則清明日 畢功 『山林經濟』(한국학기본총서제8집, 오한근 소장본 영인본), 경인문화사, 1973, 639쪽-640쪽. 인용문에서 <歲官交承>조와 <寒食清明日>조 부분은 『산림경제』의 원본에 가장 가까운 삼목영(三木榮)소장본(日)에는 없고, 후에 증보된 것으로 보이는 오한근(吳漢根)소장본과 한독의학박물관(韓獨醫學博物館)소장본 등에는 있다. 민족문화추진회 역, 민족문화문고간행회 편, 『산림경제』 I, 11-12쪽, 『산림경제』 II, 190쪽-203쪽. 동 영인본 76쪽-77쪽 참조.

9) 대한역법연구소, 『擇日大鑑』, 대지문화사, 1976, 442쪽.

10) 김혁재 원저, 김동구 편제, 『乙酉年 大韓民曆』, 명문당, 2006, 46쪽.

11) 신구간은 “대한 후 3일에서 입춘 전 3일”(1958. 1. 21자 제주신보), “입춘전 10일부터 1주일 정도의 기간(설달 그믐에서 정월 초까지)”(『백록어문』 창간호, 제주대학교 국어

그리고 『친기대요』와 『산림경제』 등에는 위에 인용한 투수일(또는 투시), 세관교승, 한식청명 이외에도 신이 하늘로 올라가서 지상에는 신이 없는 제신조천일(諸神朝天日)과 투수길일(脩修吉日), 집을 짓거나 변소를 수리해도 좋은 천룡일(天龍日)과 지아일(地啞日) 뿐만 아니라, 집, 대문, 우물, 변소 등을 만들거나 고치기에 좋은 여러 날들을 설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그 가운데 ‘세관교승’만을 받아들여 신구간에 변소를 고치고, 집을 짓거나 수리하고, 이사를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세관교승’ 대신에 다른 날을 택하여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 신구간이 ‘세관교승’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어째서 신구간이 전국적인 세시풍속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제주도에서만 행해지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신구간 풍속이 예전에는 전국적으로 행해지다가 현재는 제주도에만 남아 있다는 가설을 제기해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왜냐하면 조선 후기 이후의 세시풍속을 다룬 여러 서적들,<sup>12)</sup> 즉 홍석모(洪錫謨)의 『동국세시기, 1849』, 김매순(金邁淳)의 『열량

---

교육과, 1986, 239쪽) 등의 설도 있었지만, 통상적으로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까지 1주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세관교승’에서는 “대한 후 5일, 입춘 전 2일에 신구세관이 교승된다.”고 하여 통상적으로 알려진 신구간과 차이가 난다. 여기서 ‘세관교승’의 내용은 ‘대한 후 5일에서 입춘 전 2일 사이에 신구세관이 교체된다’는 말로 해석이 되므로, 지상에 신이 없는 기간은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까지’가 되어 입춘 전 3일째 되는 날도 신구간에 포함되어 8일간이다. 다시 말해서 대한이 1월 20일이고 입춘이 2월 4일인 경우, 신구간은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4) 8일간이 된다. 한편, 제주도의 세간에서는 ‘입춘 전 3일’이라 하면서도 입춘 전 3일째 되는 날을 신구간에 포함시킬 지에 대해서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내 신문에서 신구간과 관련된 보도(1953.1-2005.2)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입춘 전 3일째 되는 날을 포함시키지 않아서 신구간을 1주일로 잡고, 1990년대 중반 이후는 입춘 전 3일째 되는 날을 포함시켜서 신구간을 8일간으로 잡고 있다.

12) 김성원 편, 신편 『한국의 세시풍속』, 명문당, 1994 및 국립민속박물관 편, 『조선대세시기』, 민속원, 2003 참조. 앞의 책에는 홍석모의 『동국세시기』, 김매순의 『열량세시기』, 유득공의 『경도잡지』 등이 실려 있고, 뒤의 책에는 조수삼의 『세시기』, 조윤종의



세시기, 1819』, 유득공(柳得恭, 1749-1807)의 『경도잡지』, 조수삼(趙秀三)의 『세시기, 1795』, 조운종(趙雲從)의 『세시기속, 1821』, 권용정(權用正, 1801~?)의 『한양세시기』 등 어디에도 신구간 풍속을 이야기하는 곳이 없고, 해방 이전(1876~1945)의 중앙의 신문과 잡지<sup>13)</sup>에도 신구간 풍속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구간 풍속은 '세관교승'에서 비롯되었지만 예전부터(다른 지역에는 없고) 제주도에서만 행해져온 풍속이라는 가설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려면 신구간 풍속이 예전부터 제주도에서만 행해져온 까닭에 대한 좀더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천기대요』와 『산림경제』가 조선시대 후기에 전국적으로 널리 읽힌 책들인데도 불구하고 신구간 풍속이 예전부터 제주도에만 있는 설득력 있는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논하기로 한다.

### Ⅲ. 신구간 풍속과 관련된 기록

신구간 풍속에 대한 이야기는 조선시대에 제주도에 파견된 목사(牧使)나 유배왔던 선비들의 제주 풍속을 기록해 놓은 곳<sup>14)</sup>에도 없고, 일제 식민지 시대에 제주도의 풍속에 대해 기록해 놓은 곳<sup>15)</sup>에도 없다. 이러

『세시기속』, 권용정의 『한양세시기』 등이 실려 있다.

13) 국립민속박물관 편, 『한국새시풍속자료집성(신문·잡지면, 1876-1945)』, 민속원, 2003 참조.

14) 김상헌(1570-1652)의 『南槎錄』, 이원신(1594-?)의 『耽羅誌』, 이증(1628-1686)의 『南槎日錄』, 이형상(1653-1733)의 『南宦博物』, 김춘택(1670-1717)의 『北軒集』, 김윤식(1835-1922)의 『續陰晴史』 등이다.

15) 市川三喜의 『濟州島紀行』(1905), 青柳綱太郎의 『朝鮮의 寶庫 濟州島 案内』(1905), 大野秋月の 『南鮮寶窟 濟州島』(1911), 全南 濟州島廳의 『未開의 寶庫 濟

한 사실은 제주도의 원로 민속학자, 무속학자, 유학자, 향토사학자 등과 대담<sup>16)</sup>에서도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서 신구간 풍속은 한국전쟁 이전에 쓰인 제주 관련 문헌이나 기록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신구간과 관련된 최초의 기록은 다음의 <제주 신보>(1953. 1. 21일자)의 보도이다.<sup>17)</sup>

### 新舊間 앞두고 房費 輕重, 살림 威脅받는 細窮民層

年中慣例로 집 移舍하는 時期인 '新舊間'을 앞두고 賃房사리하는 公動員과 避難民들에 一部 家主들이 엄청난 房費를 要求하여 겹치는 寒波와 더불어 凶穢한 살림살이를 한 고비 威脅하고 있다. 이러한 惡德 家主에 대하여 警察當局은 屢次 中央指示에 依한 避難民住宅臨時措置令 等を 適用 假借없이 依法處斷 할 터이라 한다. …

하나의 풍속이 신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풍속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신구간 풍속에 대한 기록이 해방 이후에야 등장한다고 해서 신구간 풍속이 해방 이후에야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신구간 풍속이 해방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은 제주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알 수 있다.

문헌이 먼저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풍속이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풍속이 있어서 그것을 기록한 게 문헌이요 기록이다. 따라서 민속 문화를 연구하는 경우에 문헌 기록만을 지나치게 신성시해서는 안 된다. 특히 대

州島』(1924), 김두봉의 『濟州島實記』(1936), 泉靖一의 『濟州島』(1935-1965) 등으로 이 책들은 제주시 우당도서관에서 영인(影印)과 번역 작업이 이루어졌다.

16) 논자는 2005년 1월 11일-15일에 진성기(민속연구가), 오문복(유학자), 현용준(무속학자), 김익수(향토사학자) 선생 등과 대담을 하였다.

17) <제주일보>의 전신인 <제주신보>는 1945년에 창간되었지만, 상당 부분 누실되어 신문이 현재 1953년 이후부터 남아 있다. 따라서 그 이전 신문을 찾을 수 있다면 신구간에 대한 기록은 1953년보다 이전으로 올라갈 수 있다.

부분의 제주 문화가 구술로 전해졌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신구간의 유래와 연원을 밝히는 작업을 문헌 기록에만 의지할 수는 없다.

신구간 풍속이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 문헌에 기록되지 않은 이유를 몇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제주에 파견된 목사(牧使)나 유배된 선비들이 성리학의 이데올로기에 젖어서 무속 신앙에 바탕을 둔 신구간 풍속을 미신이라 폄하해서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는 “제주 풍속에 대체로 산, 숲, 냇물, 연못, 물가, 평지 등 나무나 바위가 있는 곳에 신사(神祠)를 만들어 놓는다. 그리고 매년 설날부터 정월 보름까지 심방[巫覡]이 신대(神臺)을 앞세워 들고 나희(儺戲)를 행하는데, 징과 북을 앞세워 울리며 마을을 돌면 사람들은 서로 다투어 재물과 돈을 바친다. 이로서 굿을 하는데 이름하여 화반(花盤)이라고 한다.”<sup>18)</sup>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무속과 관련된 풍속을 기록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신구간 풍속이 기록될만한 가치가 없어서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제 식민지 시대 말기에 제주의 특이한 문화 현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던 석주명(1908-1950)은 제주도과 관련된 여러 책들<sup>19)</sup>에서 다른 무속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신구

18) 이 기록은 조선 중기(1530년) 양성지(梁誠之)의 『신중동국여지승람』 <제주목>에 수록된 이후로 이원진(李元鎭)의 『탐라지』, 이증(李增)의 『남사일록』, 이형상의 『남환박물』 등에도 수록되고 있다. 고찬화 편저, 『제주의 전설과 민요』, 디딤돌, 2004, 27쪽, 36쪽, 40쪽, 51-54쪽 및 박정석, “화반(花盤) 놀이에 대하여”, 『서귀포문화』, 제2호, 서귀포문화원, 1998, 247-277쪽 참조

19) 곤충학자 석주명은 1942년부터 제주도에 2년 1개월간 머물렀다. 이때 그는 '나비 박사'에 이어 '제주도 박사'라는 별명을 하니 더 인을 정도로 제주도에 관해서 양과 질에서 큰 업적을 쌓았다. 1945-1949년에 제주도 관련 논문 10 편을 발표했고, 1949년부터 '제주도 총서'라는 이름으로 『제주도 방언집』(1947년), 『제주도의 생명 조사서-제주도 인구론』(1949년), 『제주도 문헌집』(1949년), 『제주도 수필-제주도의 자연과 인물』(유고·1968년), 『제주도 곤충상』(유고·1970년) 『제주도 자료집』(유고·1971년) 등을 출판했다.

간 풍속에 대한 기록은 없다. 이는 신구간 풍속을 미신으로 폄하했다기 보다는(당시에는 지금처럼 이사를 많이 했던 것도 아니고) 변소를 고치거나 집을 수리하는 것 등은 기록할 만한 이야기꺼리로 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는 신구간 풍속은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기록자들의 눈에 띠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즉 신구간 풍속이 일주일 정도의 짧은 기간에만 행해지는 풍속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눈여겨보지 않는 이상, 그런 풍속이 있다는 걸 알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제주에서 12년 가까이 체류하면서 세 번이나 이사했던 김춘택(金春澤: 1670--1717)이 지은 『북헌집』(제주기록)에 이사했던 소감과 이사한 지역의 분위기에 대한 묘사는 있으나 제주에는 특정한 시기에만 이사하더라는 기록이 없고,<sup>20)</sup> 해방 전에 2년 이상 살면서 제주 문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던 석주명의 여러 책에서도 기록되지 않은(또는 못한)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다.<sup>21)</sup>

넷째는 신구간 풍속이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외부인의 눈에 드러날 정도의 풍속은 아니었다는 주장을 펼 수도 있다. 예전에도 신구간에 평소에 동티가 날까 두려워 못했던 일들, 즉 집수리, 변소개축, 이사

20) 북헌(北軒) 김춘택(金春澤)은 두 차례에 걸쳐 제주에 체류하였다. 첫 번째는 그의 부친 김진구(金鎭龜)가 1689년에서 1694년까지 제주 동천(東泉)가에 와서 적거하는 동안 함께 와서 살았고, 두 번째는 자신이 유배 와서 1706년에서 1711년까지 그 전에 적거하던 동천에 있다가 산지(山池)로 옮겼고, 다시 남문 청풍대(淸風臺) 근처에 옮겨 살았다. 김춘택, 『북헌집』(제주기록), 김익수 역, 전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부, 2005, 17쪽 참조.

21) 한편 구한말(1897-1901)에 제주에 유배왔던 김윤식(金允植, 1835-1922)의 일기에 신구간을 전후한 시기에 이사한 기록이 두 번 나온다(1900년 1월 27일: 같이 유배온 삼은(三隱 李承五[李奎瑞])이 막은골(莫隱洞; 웃 막은골은 현재 제주은행본점 동쪽 일대이고, 아랫 막은골은 한양신용금고 앞 일대이다)로 집을 옮겼다. 1901년 2월 2일: 동녘 이웃인 이윤성의 집을 사서 2월 5일에 옮겼다). 하지만 이 기록을 신구간에 이사는 풍속으로 보아야 할지는 의문이다. 김윤식, 『속음청사(續陰晴史)』, 김익수 옮김, 제주문화원, 166쪽 및 208, 209쪽 참조.

등을 하는 풍속은 있었지만, 이사하는 빈도나 규모가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는 것이다. 전통적 농경사회에서 한 마을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다른 지역 사람이 그 마을로 이사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을 것이고, 이사를 하더라도 대체로 한 마을 안에서 이뤄졌고 이삿짐의 양도 지금처럼 많지 않아서 외부인 눈에 띄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신구간 풍속은 예전부터 제주도에 있어 왔지만, 단지 외부인의 시각에 드러나지 않아서 기록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 IV. 신구간의 유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신구간 풍속에 대한 문헌에 나타난 기록은 거의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제주도의 원로 민속학자(진성기), 무속학자(현용준), 유학자(오문복), 향토사학자(김익수) 및 세간에 알려진 의견을 토대로 신구간의 유래와 연원을 논하되, 편의상 진성기 선생의 의견을 고유문화설, 현용준 선생의 의견을 외래문화설, 오문복 선생의 의견을 백낙연 목사 기원설, 김익수 선생의 의견을 자연환경설 등으로 부르기로 한다.

##### 1. 고유문화설<sup>22)</sup>

신구간 풍속은 제주인들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오면서 제주인들

22) 이 절은 진성기(1938년생) 선생과의 대담(2006. 1. 11, 제주민속박물관)과 그가 발표한 글들을 근거로 하였다. 진 선생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민속연구가로 많은 신화와 전설을 채록하여 제주민속총서 20여권을 펴냈고, 신구간에 대한 글을 최초로 중앙학회지에 발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문헌에 신구간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진성기, "新舊間과 民俗信仰", 『국어국문학』 34·35 합병호, 국어국문학회, 1967, 211-213쪽, 『제주도민속』, 제주민속연구소, 1997, 383-388쪽 및 제주도, 『제주도지』 하, 제주도, 1982, 926-928쪽 참조.

이 터득해낸 지혜의 산물이라는 주장이 있다. 제주의 민속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진성기(秦聖麒) 선생은, 신구간 풍속은 『천기대요』가 제주도 에 유입되기 훨씬 전부터 있어왔다고 본다.

제주 속담에 '오뉴월에는 아진 방식도 못 고쳐 안나(오뉴월에는 앉은 자리도 못 옮겨 앉는다)'는 말이 있다. 이는 고온다습한 시기에 물건을 옮기며 이사할 경우에 질병 감염을 비롯하여 위생상 좋지 못하기 때문에 오뉴월에 이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신구간 풍속은 그와는 반대되는 속신인 셈이다. 즉 가장 추운 계절에 변소를 고치고 집을 수리하고 이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옛 제주인들은 오랜 경험과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신구간에 집을 수리하고 이사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아냈다. 신구간 풍속은 대단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풍속이라는 것이다.<sup>23)</sup>

그렇다고 해서 제주인들이 처음부터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신구간 풍속이 생겨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제주인들은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으며, 길흉화복을 신의 조화로 보고, 신에 대한 제례를 통해 복을 구하고 화를 피하려는 무속신앙에 젖어 살아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신들의 고향<sup>24)</sup>이라 할 만큼 많은 신화가 존재하고, 제주도의 무속신앙에서는 잡다한 신격(神格)이나 귀령(鬼靈)들이 숭배되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의 심방[巫覡]들은 신의 수효를 말할 때 보통 '1만8천 신'이라고 한다. 실제로 그 신의 숫자를 다 셀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숭배대상이 다신다령(多神多靈)임은 분명하다.<sup>25)</sup> 그러한 신들은 크게 천

23) 진성기 선생과 대담(2006. 1. 11)

24) 고대경, 『신들의 고향』, 증명, 1997 참조.

25) 제주의 심방들은 최고의 신 옥황상제(玉皇上帝)로부터 최하위신인 놀굼신(날가리神)까지 서열을 다음과 같이 매겨 놓고 있다. 즉 1.옥황상제(하늘차지) 2.지부사천대왕(땅차지) 3.산신대왕(山神) 4.대사용궁(바다차지), 5.서산대사, 육관대사(절차지) 6.

지, 일월, 산해(山海), 생업, 출산, 질병, 사망 등과 같이 인간생활의 일반적 일을 관장하는 일반신, 마을을 수호해주는 당신(堂神)인 부락수호신, 한 집안 또는 씨족을 수호해주는 일월조상인 씨족수호신 등으로 나뉜다.<sup>26)</sup> 이처럼 제주인들은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신이 깃들어 있으며 그들이 우리의 길흉화복을 지배하고 있다고 믿어왔다.

제주인들은 함부로 부엌[竈王], 통시(변소), 쇠막(외양간), 집중창(집의 일부) 등을 수리하거나 울타리 안에서 흙을 파고, 울담을 고치고, 나무를 자르면 동티가 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평상시에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다리, 눈, 머리, 목, 가슴 등이 아프거나 전신불구가 될 수 있으며, 급한 동티가 생겼을 때는 심방을 청해 빌 사이도 없이 죽는다고 믿어 왔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변소개축, 집수리, 이사 등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신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지상에 신이 없는 신구간에 하고, 평상시엔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으려 매우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이다.<sup>27)</sup>

그러나 진성기 선생에 따르면, 지상의 신들이 1년간에 있었던 일들을 옥황상제에게 보고하러 올라가지만 '목콩'이라는 신만은 지상에 남아 있어서 우리를 지킨다.<sup>28)</sup> 그래서 심방들도 초감제(招監祭) 때 1만8천신을

맹진국할망(産神) 7.홍진국대별상[夫]서신국마누라[婦](痘神) 8.날궁전,달궁전(日月차지) 9.초공(巫祖神) 10.이공(서천꽃밭 呪花管掌神) 11.삼공(전상神) 12.시왕(十王, 저승과 생명차지) 13.차사(十王의 使者) 14.명관(冥府使者) 15.세경(農畜神) 16.군웅 일월조상(씨족수호신) 17.성주(家屋神) 18.문전(門神) 19.본향토지관(부락수호신) 20.영혼, 혼백, 마을(諸祖靈) 21.칠성(富神) 22.조왕(廚神) 23.오방토신(方位 및 基神) 24.주목지신,정살지신(집안출입神) 25.울담,내담지신(울타리神) 26.놀굽신(날가리神) 등이다. 현용준, "濟州島 巫神性格과 神統", 『제주도』 16호, 제주도, 1983, 영인본 『제주도』 ⑦, 제주도, 2002, 343-351쪽.

26)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291-292쪽.

27) 진성기, 『제주도민속』, 제주민속연구소, 1997, 383-384쪽. 『제주도지』 하, 제주도, 1982, 926쪽 참조.

28) 진성기, 『제주무속학사전』, 제주민속연구소, 2004, 213쪽. 진성기 선생은 이번 대담에서 『제주무속학사전』 "신구간"(211-215쪽)에 나오는 "제반 신격이 옥황으로 승천

다 청해서 굿을 하고 잘 대접하고 전송하지만 '목퉁'만은 옆으로 빼들려 가지고 남겨두고 돌려보낸다고 한다.<sup>29)</sup>

무속신앙은 인간의 자유의지로써는 어찌할 수 없었던 자연재해와 질병 등을 이겨내기 위한 제주인들의 신앙체계였다.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주에는 옛날부터 “음사(淫祀)를 숭상하여 산의 숲, 하천과 못, 언덕, 무덤, 물가 등의 나무나 돌에 신사(神祀)를 만드는 풍속이 있다.”는 기록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제주도가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무속문화를 흡수하고 분화해서 보존해온 우리나라 무속문화의 종착적인 집결처이고,<sup>30)</sup>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다른 지역보다 무속신화가 가장 풍부하고 무속의례의 원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의 민속문화는 무속문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제주인들이 다른 지역민들에 비해 훨씬 무속적이라 하더라도, 신구간 풍속을 무속신앙의 타만으로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무속신앙은 제주만의 고유한 것이라기보다는 전과학시대의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구간 풍속이 무속에 기인한다면, 무속이 성한 다른 지역에도 신구간, 즉 대한과 입춘 사이에 이사, 집수리, 변소개축 등을 하는 풍속이 있어야 했는데, 그런 흔적조차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신구간 풍속은 제주의 무속과 외래사상이 혼합되어 발전된 제주도의 고유한 풍속이다.<sup>31)</sup>

하더라도 승천하지 않고 남아 있는 새[神]을 이름을 알 수 없다는 의미로 '명부지(名不知)'로 쓸 것을 '명부지(冥府地)'라고 잘못 썼으며, 그 신 이름이 곧 '목퉁'임을 확인하여 주었다.

29) “초감제부터 청한 신위를 다 돌려 세우는데, 하나는 때어두고 돌려 세우네다. 그 신위 따로 때어두어도 그 집안 덕이 드는 법입네다. 때어진 신위 이름은 목퉁이라는 귀신입네다. 그 귀신을 다 쫓으면 신자에게 해가 됨네다. 얼마 못 살아 죽을 터이니 그대로 알아 이를 지납네다.”(초감제 풀이, 1957. 3. 31. 제주시 삼도동 남무 58세 김오생 구송) 진성기, 『무속학』, 제주민속연구소, 2005, 284-285쪽 참조

30) 장주근, “제주도 무속문화의 지역성에 대하여”, 『제주도』 14호, 제주도, 1963, 영인본 『제주도』 ⑥, 제주도, 2001, 516쪽.



제주인들은 인력으로 극복하기 힘든 척박한 환경과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재해와 질병에 시달리면서 무속신앙을 초월적인 의지처로 삼으면서 거의 일 년 열두 달을 신에게 구속되어 살아왔다. 그러면서 제주인들은 추운 계절에 꺼리던 일을 하더라도 동티가 안 난다는 것을 체득하였다. 그런 점에서 가장 추운 때인 신구간에 변소개축, 집수리, 이사 등을 함으로써 전염병 유행을 막으려고 했던 것은 제주인들의 슬기요 과학이기 때문에 신구간 풍속은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며 굳이 '세관교승'과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sup>32)</sup>

그러나 제주의 민간에서 신구간을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까지'로 삼은 것은 "대한 후 5일, 입춘 전 2일에 신구세관이 교체된다."는 '세관교승'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주인들이 추운 시기에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동티가 안 난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 터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신에 구속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대한 후 5일과 입춘 전 2일에 신구세관이 교체되는 시기로 지상에는 신이 없다."는 '세관교승'은 제주인들에게 '신구간'이라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에는 동티가 안 난다는 자신들의 체험을 추인하는 근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세관교승'은 신구간을 하나의 풍속으로 정착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2. 외래문화설<sup>33)</sup>

제주인들이 다른 지역민들보다 훨씬 무속적이고, 신구간 풍속이 제주만의 특이한 풍속이라 하더라도, 신구간 풍속을 제주의 고유한 무속신앙

31) 진성기, 『제주무속학시선』, 제주민속연구소, 2004, 211쪽.

32) 진성기 선생과 대담(2006. 1. 11)

33) 이 절은 제주도의 신화, 전설, 무가 등을 채록하고 오랫동안 연구한 무속학자 현용준(1931년 생) 선생과의 대담과 장정룡의 『한·중 세시풍속 및 가요연구』(집문당, 1988)를 토대로 하였다.

과 연결시키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제주도의 대표적인 무속학자인 현용준 선생은 신구간 풍속이 외래문화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제주도 심방(巫覡)들이 구송하는 정진인 무기(巫歌)의 본풀이 어디에도 대  
한과 입춘 사이에 신이 하늘로 올라가거나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없고 신구간  
에 대한 이야기도 없는 것으로 보아, 신구간 풍속이 제주도의 고유한 무속신앙  
에 기인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신구간 풍속은 『천기대요』가 제주  
도에 유입되면서 생겨났다. 그리고 “신구간에는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내려온  
여러 신들의 임기가 다 끝나 구관은 옥황으로 올라가고 신관은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이 기간에는 지상에는 신이 없기 때문에, 집수리, 변소개축, 이사 등 평  
소에 꺼려했던 일들을 손보아도 아무런 탈이 없어 무난하다.”는 속신은 제주  
도 고유한 무속신앙에 기인한다기보다는 중국의 민간신앙적 요소가 짙다.<sup>34)</sup>

사실, 중국에는 일찍부터 정초(正初)에 조왕신(竈王神)에게 제사를 드  
리는 풍속이 있었다.<sup>35)</sup> 조왕신(竈王神)은 옥황상제의 부속신으로 집안  
의 평안과 복록을 관장하는데, ‘조군(灶君)’, ‘조군(竈君)’, ‘동주사명진군  
(東廚司命眞君)’, ‘호택천존(護宅天尊)’, ‘조왕야(灶王爺)’ 등으로도 불리  
는데, 가택 6신<sup>36)</sup>의 하나이다. 중국의 민간에서는 조왕신은 설달(臘月)  
23, 24일에 하늘로 올라가서 옥황상제에게 한 집안의 선악을 보고하고 다  
시 정월 초 4일에 내려온다고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가정에서는  
설달 24일과 정월 초 4일에 조왕신에 대한 제사[竈神祭]를 지낸다.<sup>37)</sup>

34) 현용준 선생과 대담(2006. 1. 15)

35) 중국의 세시풍속을 기록한 『酌中志略』, 『荊楚歲時記』, 『東京夢華錄』, 『夢梁錄』,  
『宛署雜記』, 『帝京景物略』, 『熙朝樂事』, 『清嘉錄』, 『燕京歲時記』에서는 조왕신을  
여기는 풍속이 기재되어 있다. 장정룡의 위의 책 107쪽 및 226쪽 참조.

36) 門神(2), 井神, 廁神, 中霤神, 竈王神.

37) 『帝京景物略』, 卷2, “二十四日以糖劑餅, 黍糕, 棗栗, 胡桃, 炒豆祀竈君, 以糟草  
秣竈君馬, 謂竈君 翌日朝天去, 白家問一歲事, 祝曰 好多說, 不好少說.” 陳瑞隆,  
『臺灣民間年節習俗』, (臺北: 裕文堂書局, 1982), 44쪽. “初四, 接神, 俗以臘月二十四  
日灶君和諸神上天奏報, 初四日回到人間, 家家以牲禮, 果品供奉, 燒金馬, 放爆竹

한편, 한국과 중국의 민속을 비교 연구한 장정룡은 대한 후 5일에서 입춘 전 3일에 신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지상에는 신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 꺼렸던 부일(寵王), 변소, 외양간 등을 수리하면 동티가 나지 않는다는 제주도의 신구간 풍속은 한국과 중국의 민속의 교류를 일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한다.<sup>38)</sup>

그러나 제주도의 '신구간'과 '조왕상천일(寵王上天日)' 풍속은 지상의 일을 관장하는 신이 조회(朝會)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고 간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그 때에 행해지는 풍속은 상당히 다르다. 즉 제주인들은 신이 하늘로 올라가서 없는 기간을 신이 두려워서 꺼리던 일들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기간으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인들은 신들이 없는 신구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평소에 못하던 일들을 마음놓고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삼았던 것이다. 반면에 중국인들은 조왕상천일(섣달 23, 24일)에는 조왕신이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옥황상제에게 보고할 때 좋은 이야기는 많이 하고 궂은 이야기는 적게 해달라고 빌고, 조왕하강일(정월 초 4일)에는 좋은 일이 많이 있게 해달라고 비는 제사를 지낸다. 제주인들이 신구간에 신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집수리, 변소개축, 이사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면, 중국인들은 조왕 상천일과 하강일에 오히려 신에게 더욱 더 구속되어 제사를 지냈던 것이다.

제주 무속인들의 사설(辭說)에 신구간에 대한 이야기가 한 마디도 없는 것으로 볼 때, 무속과는 관련이 없으며 『천기대요』 자체가 주역(周易)과 음양오행(陰陽五行)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세관교승'에 근거를 둔 신구간 풍속은 외래문화라는 현용준 선생의 주장은 인리가 있다.

그러나 신구간 풍속이 '세관교승'이 실려 있는 『천기대요』가 제주에

迎新, 意在新求衆神下降賜吉祥." 장정룡의 위의 책, 106쪽, 226쪽에서 재인용.

38) 장정룡, 위의 책, 106쪽.

유입되면서 생겨난 풍속이라는 주장은, '세관교승'이 실려 있는 『천기대요』와 『산림경제』가 제주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널리 읽혔지만 유독 제주에만 신구간 풍속이 있다는 사실은 설명하기 힘들다. 이에 대해 현용준 선생은 제주에서 신구간 풍속으로 자리잡게 된 이유를 농사력과 기후에서 찾고 있고, 오늘날에도 지켜지는 이유는 신구간이 임대차(賃貸借)의 회계연도로 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신구간 풍속을 미신이니 뭐니 하면서 타파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제주도의 농한기이기 때문이었다. 농촌에서 고구마 수확, 보리 파종, (초가지붕을 이을) 새 [띠]베기, 굴묵 땀 소똥 줍기 등 모든 일을 끝내려면 양력 1월이 되어야 했고, 대한이 지나가야 시간을 조금 벌 수 있었다. 그리고 제주에서의 신구간 추위는 집수리, 변수수리, 이사 등을 할 만한 추위이다. 육지에서처럼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정도의 추위라면 이 풍속이 지켜지질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신구간이 지속되는 이유는 신구간이 임대차의 제주도의 회계연도이기 때문이다.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계약기간을 신구간에서 다음 해의 신구간까지로 정해버리니까, 빌리는 사람이 어쩔 수없이 그 계약을 따르게 된다.<sup>39)</sup>

한편 논자는 제주인들이 '세관교승'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신구간 풍속으로 정착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제주인들의 사고체계 속에 '세관교승'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1만 8천신이 인간사(人間事)를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체계를 가지고 있던 제주인들에게 '세관교승'은 하나의 복음(福音)과도 같은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일 년 열두 달 매사에 신의 구속을 받으면서 살아온 제주인들에게 "대한 후 5일에서 입춘 2일에는 신이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평소에 신이 두려워서 꺼리던 일들을 해도 괜찮다."는 '세관교승'의 이야기는 복음이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구간 풍속은 곧바로 속신(俗信)으로 자리

39) 현용준 선생과 대담(2006. 1. 15)

잡을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신구간 풍속은 주역(周易)과 오행(五行) 사상에 바탕을 둔 『천기대요』의 '세관교승'이 제주도의 전통에 맞게 변형되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외래문화인 '세관교승'이 제주도에 유입되어서는 제주만의 고유한 민간신앙과 접목되어 다른 지역에는 없는 신구간 풍속으로 자리잡게 되었던 것이다. 신구간 풍속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에는 신이 깃들어 있으며, 그 신이 우리의 길흉을 좌우한다."는 제주 고유의 민간신앙과 "대한 후 5일에서 입춘 전 2일에는 신들이 조회를 하러 하늘로 올라가서 없다."는 '세관교승'이라는 외래사상이 접목되어 나타난 제주만의 독특한 풍속이라는 것이다.

### 3. 백낙연 목사 기원설<sup>40)</sup>

신구간 풍속은 우연한 계기에 생겨난 오래지 않은 풍속일 수 있다. 오문복(吳文福) 선생은 신구간 풍속은 무속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 말기(1877~1881)에 백낙연(白樂淵) 목사(牧使)가 제주 성내(城內)의 도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고 주장한다. 그는 제주향교에서 수 년 전에 돌아간 오인환 씨로부터 들은 이야기리면서 신구간의 유래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일본에 합방되기 30여 년 전에 백낙연 목사가 있었는데, 그 분의 공적에 성안의 도로를 넓혔다는 기록이 나온다. 길을 넓히려면 개인 땅을 내놓아야 하는

40) 이 절은 오문복(1938년 생)선생과 대담을 바탕으로 하였다. 오 선생은 제주도의 대표적 유학자로 제주와 관련된 많은 문집(文集)과 한시(漢詩)를 번역하고 한시 창작 집을 내기도 하였으며, 현재 제주동양문화연구소 소장으로서 있다.

41) 고려 이후에 제주에 부임했던 관리들의 치적을 기록한 <관풍안(觀風案)>에 따르면, 백낙연(白樂淵)은 고종 14년(1877) 1월부터 고종 18년(1881) 5월까지 제주목사겸 방어사로 있으면서 제주목의 동남성 바깥의 길을 넓혔다(東南城外 大路 修治). 담수계, 『증보 탐라지(1954)』, 제주문화원, 2004, 420쪽.

데 백성들이 땅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다. 당시에 목사 임기가 3년이지만 조선 후기로 가면서 3년 임기를 채우는 목사가 그리 많지 않았다. 따라서 백성들은 어찌어찌 핑계대어 목사가 떠나버리면 안 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한 해만 끝면 되겠다 싶어 “길을 트려면 통시담을 고쳐야 되는데 제대로 된 날짜를 안 보고 할 수 있습니까. 이대로 금만 그어두면 다음에 우리가 맞는 날짜를 봐가 지고 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백 목사가 『천기대요』의 ‘세관교승’을 인용하여 “대한 후 5일과 입춘 전 2일 사이에 귀신 다 하늘로 올라가버린 때이니 까 따로 택일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관에서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官’이라고 쓰인 것밭을 꽃아놓고 일을 하면, 신에게 벌을 받더라도 그대들이 아니라, 목사인 내가 벌을 받는다.”라고 백성들을 설득하였다. ‘신구간’이란 말은 그때 부터 나온 것이다.<sup>42)</sup>

그리고 오문복 선생은 신구간이 처음에는 이사, 집수리, 장매(葬埋) 등을 따로 택일하지 않고도 가능한 기간이기 때문에 자손들이 많아 택일하기가 쉽지 않은 집안에서 묘를 이장하는 기간으로 삼았지 지금처럼 이사철의 의미는 없었다고 본다. 그리고 그는 제주는 무속이 심하기 때문에 신구간 풍속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제주보다 무속이 더 심한 곳에도 신구간과 같은 풍속은 없다고 반박한다.

내가 본 바로는 전라도 중에 진도가 무속이 아주 심하다. 어릴 때 200호 정도 되는 연도라는 소리섬에서 한 3년 살았는데 거기는 바로 학교 운동장이 당(堂)이다. 운동장 한 가운데가 큰 당산나무가 있어서, 그 섬의 모든 집에서 음식을 장만해서 한 상 차려서 큰굿을 한다.(그러나 진도에는 신구간과 같은 풍속이 없다.)<sup>43)</sup>

뿐만 아니라 그는 척박한 자연 환경 때문에 신구간 풍속이 생겨났다는 가설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즉 실제적으로 보면 극한 상황에 처히

42) 오문복 선생과 대담(2006. 1. 12)

43) 오문복 선생과 대담(2006. 1. 12)

게 되었을 때 제주보다 육지부가 더 어려웠고, 제주는 고온다습한 기후로 질병이 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제주에는 의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가 없었을 거라는 것이다.

제주도만 어렵게 살았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육지가 어려운 것을 안 봐서 그렇다. 제주도에 흉년들어서 굶어서 죽었다는 말은 없다. 목사들이 흉년들어 백성들이 죽어가니 쌀 달라고 중앙에 장계(狀啓)를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별로 없다. 제주에는 겨울에도 풀이 있고, 바다에 가면 보말이라도 있지만 육지에서는 흉년이 들었다고 하면 겨울에는 풀 한포기 없으니까 천민들은 굶어죽는다. 여기서는 육지같이 가을에 쌀밥 못 먹어서 어렵게 살았다는 말이지 극한상황에 가서는 그래도 제주도가 나은 편이라고 봐야 한다. 그리고 TV드라마 '대장금'에서도 약간 언급되었지만 예전에 제주에는 꽤 의술이 발달한 곳이었다. 예를 들어 세종 때 궁궐 안에서 먼지가 많아 눈병이 나서 '제주에 색자니(塞自尼)라는 여자가 눈병을 잘 고치니 남편과 자식과 함께 올려보내라'[세종실록, 12년(1430) 12월 23일], '제주에 사는 효덕(孝德)이라는 여자가 눈병과 충치를 잘 고치니 올려보내라'[세종실록, 세종 13년(1431) 5월 6일] 는 등의 이야기가 그것을 말해준다.<sup>44)</sup>

이처럼 오문복 선생은 제주도가 척박한 자연환경과 고온다습한 기후로 재해와 질병이 심해서 무속에 많이 의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신구간 풍속이 있게 되었다는 설을 부정한다.

한편 백낙연 목사가 '세관교송'조를 인용하여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2일까지는 곧 신구세관(新舊歲官)이 교차하는 때이므로, '官'자 기(旗)를 꽂고 일을 하면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그 책임은 관리에게 있는 것이 되니, 두려워하지 말고 일을 시행하라."는 영(令)을 내렸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야기는 후에 변소를 고치는 과정에서도 가끔 있었다.

44) 오문복 선생과 대담(여기서 효덕(孝德) 이야기는 논자가 보충함)

일제시대에 7월 장마가 끝난 뒤 청결일이라는 날이 있었다. 청결일에는 집 안에서 모든 가구를 명석에 꺼내어 깔아놓고 집안을 청소하면, 일본순사가 돌아다니면서 검사를 한다. 그래서 청소가 잘 된 집들은 조그만 쇠로 된 카드를 대문에 붙여서 가구와 집기들을 명안으로 들어놓게 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순사에게 미리 가서 “우리 집에 검사오거든 ‘왜 화장실을 수리하지 않았나?’면서 뺨을 때려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 순사가 그 집에 가서 다른 데는 잘 청결한데 왜 화장실을 수리하지 않았다고 뺨을 때렸고, ‘예, 예’ 하면서 화장실을 고쳐서 아무런 탈이 없었다는 얘기가 있다.<sup>45)</sup>

이와 비슷한 사례는 그 이후에도 찾아볼 수 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 때에 6대 폐습을 없앨 때 행정직원들이 가서 ‘官令’이라고 써 붙여곤 했었고,<sup>46)</sup> 1980년대 초에 변소개량을 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

행정관청에서 어느 마을에 돛통시를 현대식 변소로 개량하도록 행정지시를 내렸더니 지역주민들이 돛통시를 함부로 고치면 동티가 난다고 갑론을박하다가 “신구간에 가서 고칠 것이니 기다려줄 것과 그 때 가서 관청에서 질긴 백지에다 빨간 인주로 ‘官’ 자를 찍어 한 장씩 나누어주면 돛통시에다 꽂아 놓고 고치겠다.”는 기사가 지방신문에 실린 적이 있다.<sup>47)</sup>

그만큼 백성들은 ‘관(官)’을 두려워하고, 관의 명령은 곧 지상(至上) 명령으로 여겼던 것이다. 오문복 선생의 주장은 백낙연 목사라는 역사적 실존 인물을 끌어들여 ‘세관교승’ 이야기가 어떻게 제주도에 도입되었고,

45) 현용준 선생과의 대담(2006. 1. 15)

46) 굶을 하지 않고도 액(厄)을 면하는 방법의 하나로 신이나 잡귀의 의지에 거슬리는 일을 하면서 ‘國令’이니 ‘官令’이니 하는 글을 써서 붙였다. 이것은 나라의 명령이니 관의 명령은 귀신도 꺾을 못하게 하는 힘을 가졌다는 일반백성들의 사고에서 나온 것이다. 나라의 명령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웅변해주고 있다. 이 방법은 변소를 수리하거나 집을 고치거나 신당(神堂)을 부술 때 흔히 사용했는데, 제주에서 새마을운동을 할 때 공무원들이 ‘官令’이라 써 붙여 놓고 당을 부순 것도 같은 맥락의 의식이다. 현용준, 『민속사진집 靈』, 각, 2004, 93-94쪽 참조.

47) 김인호, 『한국 제주 역사·문화 뿌리학』 상, 우음출판사, 1997, 42쪽에서 재인용.



신구간 풍속이 어떻게 자리잡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그러나 신구간 풍속이 우연한 계기에 생겨났다고 해도 그것이 민간 풍속으로 정착되고 오랫동안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문화적 적합성과 자연 환경적 적합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주인들이 '세관교승'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매사에 신에 구속되는 삶을 살던 무속 문화라는 문화적 토양이 있었고, 신구간 풍속이 오랫동안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백낙연 목사에 의해 우연한 계기에 '세관교승'이 제주에 알려지게 되면서 신구간 풍속이 생겨났다 하더라도, 제주의 기후적 특성상 변수개축, 집수리, 이사 등을 아무 때나 하게 되면 동티가 나지만, 신구간에 하면 동티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에 신구간 풍속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이다.

#### 4. 탐관오리설

세간에는 신구간 풍속이 탐관오리(貪官汚吏)의 수탈로부터 벗어나려는 데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다. 이 설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아주 오랜 옛적에 목사(牧使)가 중앙에서 임명을 받고 내려와서 도민을 다스렸는데, 제주에 파견된 목사 양반들이 그리 마음씨 좋은 분들이 아니었는지 도민들에게 불일 만한 명목이 있으면 서슴지 않고 세금을 내라고 억지를 썼다. 하물며 집수리를 해도 돈을 많이 벌었기에 집을 수리하는 것이라 해서 새금을 받아가고, 이사할 하고 있으면 이삿짐이 많은 것은 재산이 많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해서 세금을 받았다. 그러니 설불리 집을 고치고 이사를 하다가는 애꿎은 세금을 물게 되자 참고 견디다가 목사가 임지를 옮겨 제주를 떠나고 신임목사가 제주 땅에 도착하는 그 사이에 집을 고치고 이사를 한다고 해서

신관(新官)과 구관(舊官)이 제주땅에 없는 동안을 표현한 것이 '신구간'이다.<sup>48)</sup>

그러나 신구간이 '구관이 떠나고 신관이 오기 전 맘 놓고 이사하던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조선시대(1392~1910) 제주목사를 역임한 이는 총 286명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선정을 배운 목사는 58명으로 20%, 학정(虐政)과 실정(失政)을 한 목사가 29명으로 1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sup>49)</sup> 따라서 제주에 파견된 목사들을 탐관오리로 전제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제주 목사의 임기는 30개월이었지만 이를 반드시 지키는 경우는 드물었고, 신관(新官)과 구관(舊官)이 교체되었던 시기는 일정치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의 부임일시와 퇴임일시를 놓고 볼 때<sup>50)</sup> 신구간에 해당하는 음력 12월과 1월에 교체된 경우는 전체의 10%인 28건에 불과하다. 2개월 동안 10%만 교체되었다고 한다면, 신구간, 즉 대한 후 5일에서 입춘 전 3일 사이에 신관과 구관이 교체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구간이 탐관오리의 수탈을 피하려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주장은 근거가 부족한 가설이다.

## 5. 자연환경설<sup>51)</sup>

김익수 선생은 신화나 구전을 통해서 전승되는 속신들 가운데는 그 지역의 자연적인 특성과 기후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신구간 풍속도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본다.

48) 강무중, "신구간 是非", 제주일보, 1970. 1. 26, 현지방, "신구간", 제주일보, 1977. 1. 19.

49) 홍순만, "제주목사에 관한 서설", 『제주도사구』 창간호, 1991 참조

50) 김봉옥, "제주목민관 명단", 『증보 제주통사』, 세림, 2000, 415-470쪽 및 김동전, "조선시대 제주목사 일람표", 『북제주군지』 상, 북제주군, 2000, 527-537쪽 참조

51) 이 절은 김익수 선생(1939년 생)과의 대화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김 선생은 제주와 관련된 여러 고문헌과 고문서를 번역한 향토사학자이다.

신구간 풍속은 전설이나, 민속 신앙과 같은 신비적인 것에서 연원하는 것이 아니다. 제주에서 유배 생활을 했던 김정, 정동계, 김정희 등의 문집을 보면 풍토병(風土病)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다. 당시 육지에서 유배 온 선비들은 '장풍(瘴風)'이라는 풍토병을 가장 두려워했다. '장풍'은 습기에서 오는 데, 2월 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양력으로 2월 초하루 이전에 이사를 해야 했다. 그리고 제주에서는 2월이 되면 날씨가 따뜻해져서 곰팡이와 세균들이 번식하기 시작 하므로 파상풍의 위험이 있어 2월 전에 똥거름[豚糞]을 밭으로 옮겨야 했다. 따라서 질병의 위험이 있는 일들은 양력 약 2월 초하루 전에 해야 했다. 그런 걸로 봐서 신구간에 이사를 하고 집을 수리하고 변소를 고치는 풍속은 이런 질병과 관계가 있다.<sup>52)</sup>

그리고 그는 신구간 풍속은 질병과 더불어 태양력에 바탕을 둔 노동 시간과 농사력 등이 복합적으로 융화돼서 정착된 풍속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구간 풍속은 제주의 지리적 위치와 기후적 특성의 산물이다. 『천기대요』를 바탕으로 구체화된 신구간은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까지를 말하는데, 24절기가 중국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수정을 하게 된다. 실제로 북경과 제주도는 시간차가 1시간 정도 차이가 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위도에 따라 일조량과 개화시기의 차이가 있다.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동지에서부터 낮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해서 입춘 전 이틀쯤에는 45분 정도 길어진다. 따라서 이 시기가 되면 해 뜨는 시간을 기준으로 봐서 이웃이나 친지가 이사하는 것을 도와주고서 일하러 갈 수 있는 시간이 한 시간 남짓 되어 이 기간에 이사하는 풍속이 생겨났다.<sup>53)</sup>

그렇다고 한다면 신구간에 집을 수리하고 변소를 개축하고 이사를 해도 좋다는 속신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다. “대한 후 5일과 입춘 전 2일 사이에는 지상에 신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 꺼리는 일을 해도 좋다.”

52) 김익수 선생과 대담(2006. 1. 15)

53) 김익수 선생과 대담(2006. 1. 15)

는 세관교섭을 끌어들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따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신구간 풍속은 옛사람들이 터득한 지혜가 현실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세관교섭'이 가속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질병의 위험이 없는 농한기에 변소류 고치거나 이사를 하는 것은 예전부터 제주도의 관례였다. 그러한 관례가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사대부나 역술인들이 『천기대요』 등에 의거하여 택일하게 되면서 신구간이 '대한 후 5일에서 입춘 전 3일'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것처럼 확정된 신구간은 처음에는 주로 제주시(城內)에서만 시행되다가 인구가 제주시로 빠르게 집중되는 과정에서 제주도 전역으로 전파된 것으로 볼 수 있다.(제주시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제주시는 제주도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되었고 새로운 풍속을 도내 전 지역으로 전파하는 중심지가 되었다; 논자 주) 54)

그러나 문화가 자연 환경의 필연적 소산이라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자칫하면 그 지역민들의 주체성과 문화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한계도 있다. 다시 말해서 제주와 유사한 기후와 환경을 가진 지역에서는 제주와 유사한 문화가 있고, 제주도와 유사한 자연 환경을 가진 지역에서는 신구간과 유사한 풍속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성립할 수도 있다.

## V. 이사철로서의 신구간

제주의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방 이전에도 신구간에 이사를 하는 풍속은 있었다. 그러나 '대한 후 5일에서 입춘 전 3일에 이사하는 풍속'은 신구간 풍속의 일부이지 전부는 아니었다. '신구간 = 이사철'로 굳어지기 시작한 것은 도시화와 산업화가 이뤄져서 제주도내에 인구가

54) 김익수 선생과 대담(2006. 1. 15)

동이 빈번해지고 주택문제가 심각해지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해방 이전에 신구간에 이사하는 풍속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도 서로 다른 입장을 지닌다. 현용준 선생에 따르면, 해방 이전에는 제주도 전체가 농촌사회여서 자기 집을 다 가지고 있어서 남의 집을 빌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사하는 것은 신구간 풍속의 극히 일부였다.<sup>55)</sup> 그러나 진성기 선생은 “집짓젠 집자랑 말라, 밭짓젠 밭자랑 말라. 새 닷뭇 드런 짓 언 보난 삼칸일러라(집 있다고 집자랑 말아라. 밭 있다고 밭자랑 말아라. 띠 다섯 묶음 들어서 짓고 보니까 三間이더라)”라는 제주민요가 있듯이, 옛날에도 집 없는 사람들이 많았고 신구간을 기다렸다가 집을 얻었다고 주장한다.<sup>56)</sup> 그러나 두 분 모두 해방 이전에는 토착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이사를 하더라도 한 마을 안에서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삿짐 규모도 작아서 등짐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대규모의 이동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치한다.

제주도에 주택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것은 크게 세 가지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제주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인 4·3사건이다. 4·3사건으로 인한 마을피해는 제주도의 거의 전체 마을에 해당하는 300여 마을이었으며, 가옥피해는 2만여 호(戶), 4만여 동(棟)으로 추정된다.<sup>57)</sup> 따라서 4·3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주도 전역은 심각한 주택난을 겪게 된다.

둘째는 4·3사건의 피해가 채 아물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설상가상으로 한국전쟁 당시에 수많은 피난민이 제주도에 유입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로 인해 주택이 모자라서 임대료 급등을 가져왔다는 것은 앞에서 본 신문보도발 봉해서도 잘 알 수 있다.

55) 현용준 선생과의 대담(2006. 1. 15)

56) 진성기 선생과의 대담(2006. 1. 11)

57) 제주43연구소 홈페이지(www.jeu43.org) 피해실태 자료 참조

셋째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제주도의 인구가 제주시로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주시로 인구집중이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인구의 이동과 더불어 핵가족화로 세대당 인구수는 점차 줄어들게 되면서(세) 주택난은 더욱 심각하게 되었다.

<표1> 제주도의 인구변동 추이표(단위 천명)<sup>59)</sup>

연도 지역	1925	1935	1944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제주도 전체	205	189	221	288	281	326	358	411	462	477	501	519	513	558
제주시	39	35	46	60	67	84	106	135	167	203	232	255	279	304
제주시 집중률(%)	19	19	21	21	24	26	30	33	36	43	46	49	54	54

그렇게 본다면 신구간에 한꺼번에 이사가 이뤄지기 시작하여 신구간 풍속이 외부인의 시각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4·3사건으로 인한 주택 소실,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난민의 대거 유입, 산업화로 인한 도시로의 인구집중 등으로 주택난이 심각해지면서, 신구간에 일시에 많은 가구가 이사하게 됨으로써 신구간 풍속은 임대료 인상 문제 등의 사회문제를 낳게 되었다.

따라서 신구간에 이사하는 풍속은 예전에도 다소 있었겠지만, '세관교승'의 내용들이 역술인들에 의해 대중화되고, 제주도 전역의 인구가 제주시로 집중되면서 신구간에 이사하는 풍속이 제주도 전역으로 퍼졌다

58)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1970년대 이전에는 세대당 5명,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세대당 4명, 1990년대 이후에는 세대당 3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59) 김두봉, 『濟州島實記』, 濟州島實記研究社, 1936, 『제주도지』 제1권, 제주도, 1993, 통계청(www.nso.go.kr), 제주도청(www.jeju.go.kr), 제주시청(www.jeju.go.kr) 홈페이지 인구 자료 참고.

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신구간이 이사철로 굳어지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신구간에 해야 하는 일로는 평소에 동티가 날까 두려워 못했던 이사, 집수리, 변소개축, 이장(移葬)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러나 농촌에서 도시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주택난이 있게 되면서 신구간에 하는 여러 일들 가운데 유독 '이사'가 많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재래식 변소인 돛통시가 사라지면서 변소를 고칠 일이 없어지고, 산업화가 되면서 아무 때나 집을 짓거나 수리할 수 있게 되어, 신구간은 거의 이사철로서의 기능만 남게 되었다. 신구간 풍속은 '대한 후 5일에서 입춘 전 3일에 이사하는 풍속'으로 좁혀지게 된 것이다.

## VI. 맺음말

제주도의 독특한 세시풍속인 신구간은 분명히 실체는 있지만 정확한 유래와 연원을 알 수 없다. 개명천지한 오늘날에도 제주도에서는 신구간이 되면 이삿짐 행렬이 줄을 있고, 각 매장에서는 신구간 특수(特需)로 침체되었던 경기(景氣)가 되살아나고, 전화, 인터넷, 유선방송, 가스배달 업체에서는 비상근무를 해야 한다. 신구간에 집수리하고, 변소고치고, 이사하고, 이장(移葬)하는 풍속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고는 하지만, 해방 이전의 문헌 기록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제주의 원로 민속학자, 무속학자, 향토사학자 등과의 대담과 단편적으로 전승되는 이야기, 신문자료 등을 바탕으로 신구간 풍속의 유래와 연원을 찾아보았다. 이 과정을 통해서 신구간 풍속이 아주 오래 전인 탐라국 시대부터 있었다는 주장에서부터 해방이후, 특히 제주도화 도시화와 산업화가 되면서 생겨났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걸 확인 했다. 뿐만 아니라 신구간 풍속이 생겨나

게 된 이유에서도 옛 제주인들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지혜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에서부터 몽매한 미신 때문이라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고온다습한 기후와 자연 환경의 산물이라는 객관적 원인을 제시하는 이듬에서부터 우연한 기회에 '세관교승'이 제주도에 소개되면서 시작되었다는 주장을 펴는 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신구간 풍속은 제주도의 고유한 무속 신앙에서 기인한다는 주장에서부터 외래사상의 산물이라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가설과 주장이 가능하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사실, 그 어떤 주장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가능하다. 그러나 각각의 주장들은 서로에게 비취봤을 때 설명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도 드러난다. 따라서 우리는 각각의 주장들을 최대한 살리면서 신구간 풍속의 유래와 연원에 대해서 재구성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신구간 풍속의 정의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제주도의 신구간 풍속은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까지 평소에는 동티가 날까 두려워 못 했던 일들, 즉 변소개축, 집수리, 이사, 이장 등을 하는 풍속”을 말한다. 만일 신구간 풍속을 이렇게 정의한다면 우선 그 기간과 관련해서 볼 때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2일은 곧 신구세관(新舊歲官)이 교차하는 때이다. … 이때에는 산운(山運)에도 거리낌이 없어 길흉살에 이르기까지 극복되므로, 임의대로 가택을 짓고 장사를 지내도 불리함이 없다.”는 ‘세관교승(歲官交承)’과 무관하다 할 수 없다.

하지만 ‘세관교승’이 실려 있는 『천기대요』와 『산림경제』는 조선시대 후기에 조정과 민간에서 널리 읽혔던 책들이기 때문에 ‘세관교승’의 내용은 제주도에서보다 오히려 육지부에서 더 많이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려해야 한다. 만일 ‘세관교승’이 곧 신구간 풍속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육지부에도 대한 5일과 입춘 전 2일 사이에 가택을 짓거나 이장(移葬)하는 풍속이 있어야 할 터인데 그러한 풍속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신구간 풍속이 ‘세관교승’과 연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관교승'을 신구간 풍속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돌리기보다는 신구간 풍속의 계기(契機)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제주도 심방(巫覡)들이 구송하는 본풀이[辭說]에는 신들이 한 해 동안 지상에서 있었던 일들을 옥황상제에게 보고하기 위해 하늘[玉皇]에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없다. 반면에 중국의 민간에서는 일찍부터 "조왕신(竈王神)이 설달 23, 24일에 한 해 동안 집안에 있던 일들을 옥황상제에게 보고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고 정월 초 4일에 다시 내려온다."는 민간 도교신앙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 해 동안 지상에서 있었던 일을 옥황상제에게 보고하기 위해) 구세관이 하늘로 올라가고 (옥황상제로부터 새로운 임명을 받은) 신세관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지상에는 신이 없다 ..."는 속신은 무속적이기보다는 도교적이다.

그러나 외래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세간교승'이 제주도의 고유한 신구간 풍속으로 자리잡게 된 데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적의 문화적 풍토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옛날부터 제주인들은 우리를 둘러싼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으며 그 신들이 길흉화복(吉凶禍福)을 좌우한다고 믿으면서, 항상 신에 구속되어 수많은 금기(禁忌) 속에 살아왔다 하여 돛통시의 들담 하나 나무 한 그루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삶을 살아 왔던 것이다. 그러던 참에 '세관교승'의 이야기는 하나의 복음(福音)이었다. 1년 중에 단 1주일만이라도 이 지상에 신으로부터 해방되고, 금기들이 풀려서 마음 놓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일대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한 '세관교승'은 제주인들에게 추운 계절에는 번소불 고치고 집을 수리하고 이사불 하더라도 이부린 탈이 없이는 오랜 경험과 시행착오 속에서 얻어낸 잠정적인 진리를 재확인해주는 이론적 근거가 되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세균 활동이 시작되고 식물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새철이 들기[立春] 전에 묵은철을 정리하고 새철을 준비하는 것은 대단히 필

요한 작업이었다. 그러나 토착 농경사회에서 이사하는 것은 그리 큰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요즘처럼 이사를 자주 행하지도 않았고, 이사를 하더라도 대체로 한 마을 안에서 이동을 했으며, 세간살이도 많지 않아 등짐으로 저 날라도 충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사회에서는 신구간 풍속의 여러 기능 가운데 이사(移徙)보다는 집수리, 변소개축, 이장(移葬) 등이 더 중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신구간 풍속 중에 이사의 기능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해방 이후에 와서 제주사회는 4·3사건으로 2만여호(戶) 4만여 동(棟)의 가옥이 파괴되었고, 엄청난 데 엄청난 격으로 한국전쟁으로 수많은 피난민이 유입되면서 제주도 전역은 주택난을 겪게 된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에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구가 제주시로 집중하게 되면서 주택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고, 거처를 마련하는 일이야말로 일상에서 가장 중대사가 되었다. 하여 '신구간 = 이사철'로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신구간에 이사를 많이 하는 이유는 제주인들이 아직도 신화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임대차의 회계기간이 신구간으로 정착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설득력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주의 고온다습한 기후와 제주인들의 무속적 성향으로 볼 때 질병이 위험이 적으면서도 한가한 가장 추운 시기에 동티가 날까 봐 두려워서 못하던 일을 하는 풍속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신구간이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까지'라고 분명하게 정해지게 된 것은 『천기대요』의 '세관교승'이 소개된 이후부터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리고 지금처럼 신구간이 '이사철'의 기능만 남게 된 것은 제주도가 도시화되고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 주제어

신구간, 이사철, 세시풍속, 무속신앙

Abstract

The Origin of the Seasonal Custom of *Singugan* at Jeju Island

Yoon, Yong-taek

*Jeju* people have a unique seasonal custom of *Singugan*(新舊間, literally means 'between new and old') that cannot be found in the mainland of Korea. *Singugan* is a period of eight days between the fifth day after *Daehan*(大寒, the last of the 24 seasonal divisions of the year, around January 20) and two days before *Ipchun*(立春, the first of the 24 seasonal divisions of the year, around February 4). This period(around January 25 to around February 1) is thought to be the time gods are absent on the earth because they finished their duties for the year so as to ascend to Heaven to hear from the *Okhwangsanje*(玉皇上帝, The highest of the heavenly gods of Taoism) their new year's missions. People, therefore, can repair their house or fence and move during the period without any harms because gods don't meddle in human affairs in *Singugan*.

This Myth appears in *Chungidaeyo*(天機大要) and *Sanlimgyongje*(山林經濟) which had been widely read at *Joseon* dynasty(1392-1910). But the custom of *Singugan* has not found in the mainland of Korea. Only Jeju residents repair their house or *Tongsi*(Pig-latrine) and move in *Singugan*. It is not well explained that the custom of *Singugan* has been performed only at *Jeju* only on the basis that *Jeju* residents have widely believed in shamanism. Shamanism has been believed in other regions as well.

In *Jeju*, unlike in other regions, plants are flourished and germs are propagated almost all the year round with the warm and wet climate of

Jeju. Only in *Singugan*, plants shrink from flourishing and most germs shrink from propagating at *Jeju*. *Singugan*, therefore, is the time people need to fear no diseases and the farmers can have their leisure time at *Jeju*. And *Singugan* is the term that completes the old seasons and prepares for the new season. For these reasons, Jeju islanders are busy repairing their house or pig-latrines and house-moving in *Singugan*.

Many houses were destroyed by fire in *Jeju* 4.3 Uprising(1948-1954), many refugees flowed into *Jeju* in Korean War(1950-1953), and the cityward tendency of the population has brought about housing shortage since 1960s. *Singugan* has come to be house-moving season since the house famine posed a big social problem in *Jeju*.

**Key Words**

*Singugan*, house-moving, seasonal custom, shamanism

교신 : 윤용택 690-756 제주시 아라1동 1번지 제주대학교 철학과  
(E-mail : sumsaram@cheju.ac.kr 전화 : 010-9977-2178)

최초 투고일 2005. 12. 6

최종 접수일 2006. 1. 11